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국민행복, 희망의 대한민국

http://www.motie.go.kr

2015년 2월 11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창의산업정책과 황수성 과장(044-203-4360), 주상현 사무관(044-203-4368)

산업현장의 창의·융합을 주도할 핵심인재 양성의 요람을 찾습니다.

- 기술과 인문의 장벽을 트는 창의·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「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」 신규 사업계획 공고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는 2. 11. 산업융합 흐름(트렌드)에 걸 맞는 다학제적 융합 교육을 통해 산업현장의 창의 혁신을 주도해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'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 신규 사업계획'을 공고했다.

○ 이 사업은 '17년까지 '창의산업융합 특성화 대학원' 10개교를 선정하여 360여명의 석사급 창의·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현재 '13년과 '14년 각 각 3개 대학씩 6개 대학을 선정 지원하고 있다.

* '13년도 선정대학 : 성균관대, 조선대, 호서대
* '14년도 선정대학 : 건국대, 단국대, 한양대

□ '창의산업융합 특성화 대학원'의 주요 특징은 인문·경영계, 자연·공학계 등 폭 넓은 융합역량을 갖춘 교수진을 갖추고 다양한 전공의 학생을 선발한다.

○ 다(多)학제적 교과과정을 운영하고, 산업현장의 수요에 기반한 프로젝트를 교수와 학생, 기업이 공동 수행 하면서 융합화 역량과 창의성, 팀워크, 리더쉽 등을 배양한다.

□ 선정한 6개 대학은 다(多)학제적(인문+공학 등) 교과과정을 개발하고, 산학협력 중점교수 등 교수진 확충,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특허출원 및 등록(16건), 산학협력프로젝트 시제품 개발(23건)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창의 융합활성화를 선도할 졸업생 36명이 배출되어 산업현장의 창의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.

<대학별 주요성과>

○ **(성균관대 휴먼ICT융합학과)** 산업디자이너 제품디자인(UI)/앱개발(UX), 감성디자인 등을 융합한 '시니어 대상 UI/UX 가이드라인 수립 프로젝트' 등 3건의 프로젝트로 공모전 등에서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장상, 장려상 등 4건을 수상

○ **(조선대 창의공학디자인융합학과)** 광기술, 전자공학, 디자인을 융합한 광융합분야를 특성화하여 '도시경관 및 환경용 투광등 및 경관조명 제품 개발' 등 9건의 프로젝트를 진행, 2건의 국제디자인상을 수상

○ **(호서대 나노바이오트로닉스학과)** 나노, 바이오, 메카트로닉스 등을 융합한 '노인 환자용 반려로봇 개발'등 5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1건의 기술이전 및 '나노물질의 독성평가 기술' 관련 국제표준 진행

○ **(건국대 스마트ICT융합학과)** 웨어러블 스마트 제품, 서비스 융합분야 3건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'스포츠/레져용 스마트 디바이스' 등 3건의 시제품 개발

○ **(단국대 창의융합제조공학과)** 기계, 화학, 디자인이 융합된 제조공학 융합분야 3건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'100w 등기구 디자인 개발 프로젝트'를 통해 시제품 개발

○ **(한양대 융합시스템학과)** 센서, 제어, 생체공학에 기반하는 인간중심의 교감형 기계시스템 융합분야 '손가락 재활 의료장치 개발' 등 3건의 산학협력 프로젝트 진행 중

□ 이러한 성과는 '창의산업융합 특성화 대학원'이 기존 기술연구 중심의 융합형 인재양성과 달리,

○ 다(多)학제적 융합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인문, 경영계, 자연·공학계 등 폭 넓은 융합 역량을 갖춘 교수진 및 참여학생을 확보하고,

* (교수 확충) 대학원별 참여교수의 75% 이상을 다양한 전공으로 구성하고,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 등을 통해 실무 교육 강화 도모
* (학생선발) 기계공학, 산업디자인 등 공학, 예술·인문학, 경영학 등 다양한 전공자들을 선발

○ 융합 교과과정과 실무 프로젝트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하나의 과목에 복수의 교수가 참여하는 '팀 티칭 방식' 등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의욕을 높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.

* (학습활동(커리큘럼) 개발) '생체모방공학'(성균관대), '정보통신기술(ICT)융합 문제 해결기법'(건국대) 등 공학에 디자인, 기술경영, 마케팅 등을 접목하고 프로젝트 실습을 통해 융합 실무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교과목 개발
* (교과과정 운영)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증진하기 위한 팀티칭 수업 방식 도입과 다양한 전공의 교수·학생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을 운영하여 융합 제품·서비스 개발

□ 또한, 산업 현장 수요 기반의 실무 능력 배양 및 고용연계를 위해 다양한 참여기업과의 양해각서(MOU) 체결 , 현장실습, 전문가 멘토링 등 산업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.

* 참여기업 40개사를 확보하고, 21건의 산학협력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75명의 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

□ 산업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'창의산업융합 특성화 대학원' 2개교를 신규 선정하여 대학 당 5년간 약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.

○ 선정된 대학들은 교과목 개발 등 교과과정 준비와 신입생 모집을 거쳐 올해 9월 첫 학기를 개강하고, 각 분야별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.

<2015년도 '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' 사업 개요>

○ **사업기간** : '15.4 ~ '16.2 (1차년도)
○ **지원규모** : '15년도 총 6억 원(대학별 3억 원 수준), 2개 대학 선정
- 2차년도 부터 6억 원 내외 지원 예정
○ **교육인원** : 대학원별 매년 15명 이상 석사 신입생 선발, 교육 실시
○ **신청자격** :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원 학과를 신설 또는 개편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전일제 정규 주간 대학원 과정이 개설된 4년제 대학

□ 아울러 '15년에는 참여대학 공동워크숍 개최를 통한 참여대학간 교류를 활성화하고,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성과발표회 개최와 성과 공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.

* 특성화대학원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 졸업생에 대한 포상을 추진
* 참여대학 간 우수 교과과정과 주요 수행 프로젝트 성과 공유

□ 산업부는 앞으로도 "창의산업융합 특성화 대학원" 확대를 통해 인문, 공학, 경영,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화 역량을 갖추고 산업현장의 융합경영, 창업 등을 주도해 나갈 핵심인재를 양성함으로써, 창의적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실현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."고 밝혔다.

붙임 :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 사업 개요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주상현 사무관(☎ 044-203-436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 고 **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 사업 개요**

1. 사업 추진방향

◈ **새로운 융합 트렌드에 걸맞는 다학제적(인문+공학 등) 융합화 역량을 갖추고 산업현장의 융합화를 주도해 나갈 고급 특성화 융합인재 양성**

* 산업현장 수요에 기반 한 '융합사업 프로젝트'를 중심으로 多학제적 융합교육

1 인문-공학間 多학제적 융합화 소양 배양

○ 기존 기술연구 중심의 융합형(型) 인재양성과 차별화하여 **인문, 공학, 경영,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화 능력**을 배양

- 多학제적 융합화 역량을 기반으로 **산업현장의 융합화 코디네이팅, 융합경영 및 사업화** 등을 주도해 나갈 'Leader급 융합인재' 양성

* 공학-인문·예술 등 원거리 전공자間 소통·교류 기법, 핵심기술·시장 동향, 유망 융합아이템의 사업화 애로 및 시장개척 등 종합적 융합경영 역량 배양

○ 특히 **인문적 관점에 기반한 융합**의 중요성을 체감하고, 기존산업의 창의·혁신 및 **소비자 심리(니즈)**에 부합하는 융합 신산업 창출 역량 제고

* 多학제적 관점을 기반으로 건강·웰빙, 감성, 편의·안전 등 새로운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융합 신제품·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인재 양성

2 글로벌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 창의융합인재 양성체계 구축

○ 친환경, 고감성·편의·안전, 스마트·지능화 등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, **차세대 유망 新산업·서비스* 창출**을 위한 특성화 융합인재 양성

* 기존 산업, 농업, 문화서비스 등의 고부가가치 창출, 고도화 등 포함

○ **주요 분야별로 특성화된 창의융합인재 양성기관**을 선정, 집중 육성하고, 이를 중심으로 유망분야 산업융합 인재확산을 도모

* 대학의 기존 강점 인프라, 교수역량 등을 활용·연계하여 특성화 교육체제 강화

3 산업현장의 수요와 연계한 창의융합型 인재양성

○ 기업수요 기반의 **Real_Project 교과과정 운영**을 통해 **실무 융합 능력 배양과 고용연계가 강화**된 산업융합 전문인력 양성 도모

*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'특성화분야 융합사업 프로젝트' 교과과정을 개설·운영하고 산업체 연구원·전문가 등이 참여교수 등으로 활동

○ 산학 협력 MOU,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**특성화 대학과 산업계간 지속적·상시적 동반협력 관계** 조성

* 고용연계型 산학협력 MOU, 창의산업융합 인턴쉽 프로그램 등을 통해 졸업後 취업 연계 강화, 대학의 자립화(기업 투자) 방안 등 도모

4 팀-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는 창의융합교육 과정 운영

○ **(팀 Teaching)** 하나의 과목에 복수의 유관 교수가 참여하는 **팀 티칭방식 도입**으로 융합교육의 효과를 제고

* 例 : 하나의 과목을 공학·사회학·경영학 등 다수의 유관 교수가 분담 강의

○ **(프로젝트팀 운영)** 다수의 실무 프로젝트 교과과정을 개설하고, 각 프로젝트별로 **복수의 교수와 다양한 전공 학생들로 팀**을 구성

*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인문-공학 전공자간 소통·아이디어 교류, 사업화 등 관련 실무교육, 현장실습, 프로젝트 성공모델(기술적·비즈니스적) 발굴 등 병행

☞ 신입생 기준 첫 학기는 기본 융합소양 중심→ 두 번째 학기 이후 프로젝트 중심 교육으로 강화

창의산업융합특성화대학원 공통 컨셉

◈ 산업현장 수요에 기반한 실제 융합사업 프로젝트를 발굴

◈ 프로젝트 성격에 맞는 이종(異種)분야 전공자 참여를 통한 융합 실무 전문가 (기획·홍보·마케팅 등 상품 전주기 기획 전문가) 양성

◈ 산학 공동 프로젝트 수행(팀제) 과정에서 산업융합 제품화 전반을 Leading 할 수 있는 다학제적 융합인재 양성

◈ 현장실습, 프로젝트형 과목 이수 등을 통한 산학협력 및 고용연계 강화

2. 사업 지원 내용

□ **사업기간** : '15.4 ~ '16.2 (1차년도)

□ **지원규모 및 기간**

○ **지원규모** : '15년도 총 6억원(대학별 3억원 수준), 2개 내외 대학 선정

* 2차년도부터 대학별 연간 6억원 내외 지원
  - 단,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

○ **지원기간** : 5년(2+3년)* 지원 후 자립화 유도

* 5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, 2년간 지원 후 (3~5차년도)에 대해서는 수행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(차등 지원 포함) 결정

○ **대응투자** : 정부출연금 대비 25% 이상 매칭(현금, 현물 포함)

* 대학 15% 이상, 참여기업 10% 이상(민간부담금 총액의 10%이상 현금투자)

□ **신청 자격** : 4년제 대학과 참여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

< 주요 신청 요건 >

▸**(컨소시엄)** 국내 대학(4년제)이 해당 특성화분야 기업체와 공동 프로젝트, 고용연계 등과 관련된 컨소시엄(협력 MOU 등) 구성 후 신청

▸**(학과개설)** 선정後 일반(전문) 대학원에 '창의산업융합 특성화 학과*'를 신설하거나 旣 설치된 학과를 '창의산업융합 특성화 학과'로 개편, 운영

* 학과명은 해당 특성화분야에 따라 자체 설정

▸**(교수인력)** 전임교수 2인 이상을 포함한 총 5명 이상의 '창의산업융합 특성화 학과' 소속의 교수(산학협력중점교수 등) 인력 확보

□ **교육인원** : 대학원별 매년 15명 이상 석사 신입생 선발, 교육 실시

□ **중복제한** :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'WCU(World Class University) 사업' 등 인력양성 관련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의 학과 제외